

# 인공지능 거버넌스 초안 마련... “범정부AI추진위 신설해야”

**인공지능 거버넌스·정책보고서 발표  
비상정지, 흐름에 역행 지적 제기  
거버넌스 규제·제한 최소화돼야**

한국 정부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인공지능(AI)을 통제할 수 있는 ‘킬스위치’와 같은 ‘비상정지’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사람이 AI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범정부인공지능추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공지능 거버넌스 포럼은 19일 지난해 7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는 이경전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김선희 서울대 교수, 궁선영 경희대 교수, 박성혁 카이스트 교수, 우지숙 서울대 교수, 고학수 서울대 교수(움제버), 임정욱 TB T 대표 등 AI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마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이슈, 원리와 실천’ 초안을 발표했다.

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가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정책 보고서 발표회’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정책 보고서 발표회’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능정보기술의 동작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정지하는 것’과 ‘비상정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반면, 방통위의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서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고, AI 행위자가 법규,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AI를 포괄하기는 어려운 만큼, ‘범정부인공지능추진위원회’를 만들어 AI에 의한

전 분야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AI 연구가 필요하다”며 “부족하다면 과기정통부를 인공지능까지 포괄하는 부서로 확대 개편해 프로젝트 추진과 공동 데이터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에서 우선 인공지능은 ‘지능적 사물, 지능적인 인간, 지능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방법론’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은 ‘기계, 인간, 환경 등으로 이뤄진 시스템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지원하는 행동 목표의 달성 확률을 높이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은 강력하지만 제한돼 있다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주류적인 인공지능의 정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거버넌스는 정부 일방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협치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거버넌스란 ‘개인, 사회, 기업, 정부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AI시스템의 행동 목표가 적절한 지 관리하는 사회적, 기술적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프랑스에서 ‘로봇이 실업을 야기한다’며 로봇 개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있었다”며 “AI가 차이, 편견을 만들고 실업을 만든다는 논의도 제기되지만, AI 기술이 본질적으로 갭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고 오히려 좁히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AI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은 시스템 성과를 제한시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규제와 제한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는 AI 개발자와 사업자가 스스로 지키게 해야 하며, 이 같은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에 대한 모든 것은 법에 의해 가야 한다는 입장에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리도 기존 법에 근거해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AI를 새로운 기술로 봐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것만을 위한 규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 포스코, 새 가치 창출 ‘뉴칼라’ 인재 육성

**‘뉴칼라 레벨 인증제’ 도입  
IT 신기술 활용 통한 업무 개선  
AI·빅데이터 활용 교육 세분화**

포스코가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뉴칼라’ 인재 육성에 본격 나선다

포스코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는 ‘뉴칼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뉴칼라 레벨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칼라는 정보통신(IT)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군을 말한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넘어 기존 직업군을 대체하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IBM 최고경영자 버지니아 로메티가 2017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포스코가 시행하는 뉴칼라 레벨 인증 제도는 직원의 IT 역량 수준을 4개 레벨로 구분, 수준별 교육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포스코 권영국 명장이 MZ세대 직원들에게 맞춤형 직무교육을 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시대에 발맞춘 사내 지식공유 동영상 플랫폼인 ‘포스튜브’를 제작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IT 기초지식 학습부터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수준까지 폭넓게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 이러닝을 활용한 기초적인 데이터 활용 교육부터 심화 교육과정인 ‘인공지능 활용전문가과정’까지 다양한 사내 AI·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합

하고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뉴칼라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레벨 인증을 받으면 혜택도 부여한다. 단계별 인증자에게는 승진 가점, 주재원 선발 우대 및 관련분야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AI 투자 파운트, 운용자산 8000억 돌파

국내 관련 업체 중 가장 많은 금액

인공지능(AI) 투자 전문 리딩기업 파운트가 3분기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운용자산총액(AUM)이 8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매 분기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시되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말(3분기) 기준 파운트의 자산총액은 8074억원으로,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11월 설립된 파운트는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초기 금융기관에 AI 알고리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에서 점차 파운트 솔루션 도입이 늘어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파운트는 2018년 6월 개인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 ‘파운트앱’을 내놓으며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10월말 기준 20여개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파운트 AI 솔루션으로 운

용되는 금액 규모만 3조원에 이르며, 개인이 직접 투자 가능한 파운트 앱의 누적다운로드는 22만건, 누적회원 수 5만 8000명, 누적계좌 수는 1만 5000건이다.

파운트의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는 대형 금융기관에서 인정한 AI 기술경쟁력과 글로벌 시장현황에 빠르게 대응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수시 리밸런싱 시스템, 자산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금융전문가의 실시간 1:1 맞춤관리 등 기술과 투자자 중심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로 분석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 자폐스펙트럼장애 조기선별 위한 AI 연구

ETRI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 연구진이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조기에 알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 기술을 통해 세계적 증가 추세에 있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이룬 시기에 선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영유아·아동의 발달장애 조기선별을 위한 행동·반응 심리인지 AI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개발 초기 단계로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상태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한 특징과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특성을 분석해 발견할 수



자폐스펙트럼장애 선별을 위해 개발 중인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유도를 위한 영상 콘텐츠 한 장면 /ETRI

있다. 특히, 조기에 치료받으면 결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 부족, 인식 부재, 시간과 자원의 문제 등으로 증상 발견에서 실제 진단에 이르기까지는 2~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 창업기획자 스파크랩 온라인 데모데이 성료

사업모델·제품서비스 등 소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이 15기 온라인 데모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스파크랩 데모데이는 스파크랩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이다.

15기 기업들은 데모데이에 참석해 사업모델과 제품서비스 등을 투자자와 외부인에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스파크랩 데모데이는 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스파크랩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데모데이 무대에는 ▲비트윈잡(BetweenJobs) ▲옥타코(Octatco) ▲로랩스(RawLabs) ▲서울번드(Seoul Bun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이 15기 온라인 데모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스파크랩

d) ▲샤크마켓(Shark Market) ▲리코(RECO) ▲세린컴퍼니(XELIN)가 올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폐널세션으로는 엠씨 해머(MC Hammer)가 ‘기술, AI, 창업가 정신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